

주간 증시 브리핑

2026.7.27(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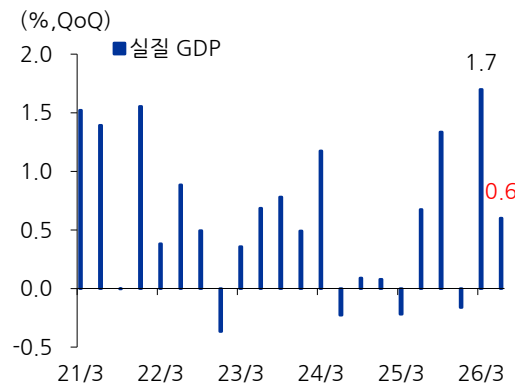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증시요약]** 코스피는 韓 2Q 성장률 예상 상회(+0.6%qoq), 美 알파벳 실적 호조로 7천선 회복을 시도했으나, 무산됨 (6,690p, 주간 -130p, -1.9%). 코스닥도 재차 급락함 (748p, 주간 -5.5%). 美/이란 긴장 격화 속에 브렌트 유는 배럴당 100달러대까지 상승함. 달러원은 유가 불안에도, 1,466원까지 하락함.
- **[해외증시]** 美 증시는 이란 전쟁 우려와 빅테크들의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며 하락함 (주간 S&P500 -0.6%, 나스닥 -2.1%). 닷케이는 그간 급락 이후 소폭 반등함 (주간 +0.7%). 中분토증시와 홍콩증시는 하반기 재정정책과 AI주에 대한 관심으로 상승 (주간 상해 +1.3%, 홍콩 +1.6%).
- **[시장전망]** 경험적으로 코로나19 당시처럼 단기 급락 이후에는 V자 형태의 급반등이 나타남. 그러나 AI 투자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과 美/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이 추가 회복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주요일정]**
 - ① 美 6월 PCE물가지수(7/30일)
 - ② 美 2Q GDP(7/30일)
 - ③ 美 FOMC 회의(7/28~29일)
 - ④ 日 BOJ 금융정책결정회의(7/31일)
 - ⑤ 유 2Q GDP(7/30일)
 - ⑥ 유 7월 소비자물가(7/31일)
 - ⑦ 美 애플, 아마존, MS, 메타 등 실적발표

구분		7/24	1W	1M
KOSPI	↓	6,691	-1.9%	-21.0%
S&P500	↓	7,412	-0.6%	0.7%
DOW	↓	51,947	-0.4%	0.2%
닛케이225	↑	64,611	0.7%	-6.6%
상해종합	↑	3,814	1.3%	-7.2%
원/달러(원)	↓	1,466.6	-0.8%	-4.9%
엔/달러(엔)	↑	163.7	1.0%	1.2%
국고채3년(%)	↑	3.959	3.848	3.772
국고채10년(%)	↑	4.447	4.297	4.171
미국채10년(%)	↑	4.679	4.55	4.394
WTI(달러/배럴)	↑	89.3	8.3%	27.0%
한5-yr CDS(bp)	↑	23.5	0.49	0.7

CHART of the week

韓 실질 GDP 추이



1

韓 2Q GDP 전기비+0.6% 상승(7/23일)

5년 만에 3%대 성장 기대, 추가 인상

- 韓 2Q GDP는 +0.6%(QoQ), +3.7%(YoY) 성장. 한은(+0.2%)과 시장 예상(+0.4%)을 모두 상회함.
- 국내 총소득, 즉 실질 GDP는 전기비 +3.6%, 전년비 +15.6%로 1988년 이후 38년 만의 최고. 반도체發 교역조건 개선이 구매력을 견인함.
- 1분기(+1.8%) 고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긴장에도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상쇄함.
- 그러나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둔화됨. 건설 투자도 감소로 반전됨. 여전히 수출 편중(기여도 +0.7%p)의 양극화 성장은 지속됨.
- 2026년 연간 3.4~3.5% 성장 (5년 만에 3%대 성장), 2027년 3.0%대 성장을 예상함.
- 2Q 성장률 호조로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2

ECB 기준금리 동결(7/23일)

잠시 멈춤, 9월 인상 가능성 상존

- ECB는 기준금리인 수신금리를 2.25%로 동결함(한계대출금리 2.75%, 재융자금리 2.5%).
- 6월 유로존 물가는 +2.8%yoy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중동 전쟁 전 수준을 상회함.
- 라가르드 총재는 에너지 충격 영향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언했고, 일부 위원들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힘.
- 美-이란 전쟁 재개로 브렌트유는 다시 100달러를 돌파(7월 +38%)하며 물가 2차파급 우려가 커짐.
- 다행히 성장률과 소비 지표는 경기 둔화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님. 물가 지표를 확인하며 9~10월 추가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3

美 알파벳 2Q 실적 발표(7/22일)

매출과 투자 성장 지속. 그러나 지속성은 의문

- 美 알파벳 2Q 매출은 +24%yoy 증가(1,198억 달러)하며 예상을 상회함. 주당 당기순이익(EPS)은 투자자산(엔트로픽, 스페이스X) 평가액 증가로 덕분에 9.11달러를 기록하며 기대치(2.89달러)를 크게 상회함.
- 클라우드에는 +82%yoy 성장하며 1Q(+63%) 대비 성장세가 가속화됨.
- 관심이 집중되었던 2Q 설비투자 규모는 449억 달러(+100%yoy)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26년 연간 가이던스도 기존 1,85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상향함.
- 그러나 급격한 투자 확대로 FCF(잉여현금흐름)이 -58.6억 달러로 적자 전환됨. AI 투자의 지속성과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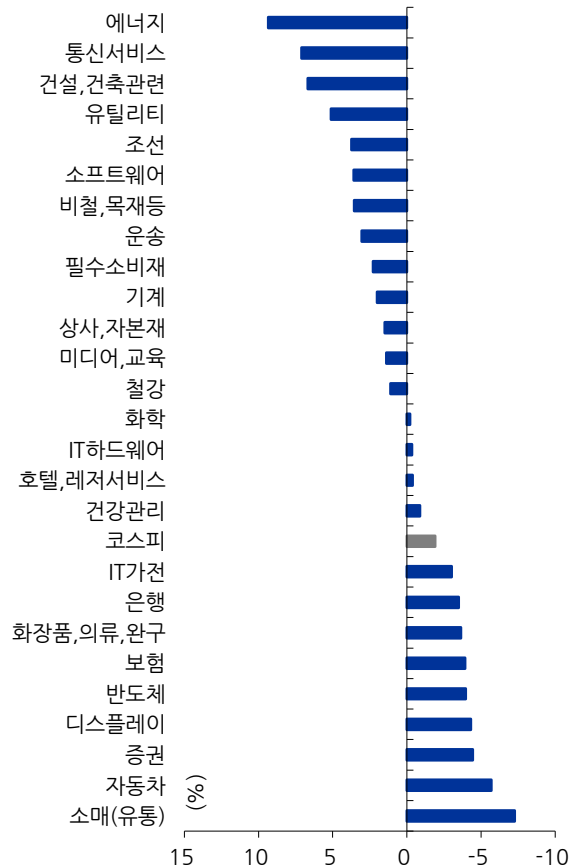
韓 채권시장 동향(7/20~7/24)

전쟁과 유가 연동, 베어 스티프닝 마감

- 국고채 3년물 금리 3.959%(+11.1bp), 10년물 금리 4.447%(+15bp) 마감.
- 금리 전 구간 큰 폭 상승. 원인은 1) 마이란 간 공습으로 전쟁 우려 재발 2) 유가 급등 3) 국내 2분기 GDP 서프라이즈.
- 여기에 미국 고용 호조, 영국 신임 총리의 재정 확대 언급, 미국 301조 근거한 60개국 추가 관세 등 요인도 겹치며 금리 상승.

주요 이슈 / 경제 지표 전망 / 주요 일정

주간 업종별 수익률(7/24 기준)



주요 경제지표 예상(7/27~7/31)

美 7월 FOMC회의 → 동결 전망, 중동 리스크 주목

- 美 연준은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3.5~3.75%)할 것으로 예상
- 美 6월 CPI는 -0.4%mom, +3.5%yoy로 5월(+4.2%) 대비 둔화. 근원 CPI도 전년비 +2.6%로 낮아지며 에너지 충격의 2차 파급 우려는 일부 완화됨
- 6월 에너지 물가는 전월비 -5.7% 하락하며 하락 주도. 물가 지표만 보면 연준이 7월 회의에서 즉각 인상엔 나설 명분은 제한적
-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유가가 급등(전월말 대비 WTI +25%)하며 美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재차 돌파. 에너지 물가 경로 불확실성 재차 높아짐
- 워시 의장은 포워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기준처럼 물가 안정 의지 강조할 것으로 예상. 7월 회의는 동결이 유력, 9월 이후 인상 가능성 좌우될 것

日 7월 BOJ 금정위 → 동결 전망, 추가 인상 신호 확인

- BOJ는 7월 금정위에서 기준금리를 1.0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
- 6월 BOJ 금정위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1.00%).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기 우려에도 물가 경계를 우선함
- BOJ는 기초 물가가 FY26 하반기 이후 2% 목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 노동 부족과 임금 상호 상승 메커니즘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도 지속
- 6월 日 CPI는 +1.6%yoy로 아직 높지 않지만, 중동 리스크 재확대에 따른 유가 상승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 큰 부담.
- 7월 회의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BOJ가 엔화 약세와 수입물가 재상승을 근거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강하게 시사하는지가 관건

주요 경제지표 발표

매크로 / 시장 이벤트

	주요 경제지표 발표	매크로 / 시장 이벤트
7/27 (월)	- 美 6월 내구재 주문 (C: +1.5%mom, P: -4.5%mom) - 中 6월 산업생산 (P: +18.8%yoy)	[실적발표] 韓 한화오션, 두산에너지
7/28 (화)	美 7월 CB 소비자신뢰지수 (C: 91.2pt, P: 92pt)	[실적발표] 韓 HD현대일렉트릭 - 美 비자, 코카콜라, 시게이트, 보잉, 코닝, 블룸에너지
7/29 (수)		[美 FOMC 회의(~29일)] [실적발표] 韓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크래프톤 - 美 MS, 메타, 램리서치, 퀄컴, 버티브, 로빈후드
7/30 (목)	- 美 6월 PCE물가지수 (C: +3.6%yoy, P: +4.1%yoy) - 美 6월 근원 PCE물가지수 (C: +3.3%yoy, P: +3.4%yoy) - 美 2분기 GDP (C: +2.3%, P: 2.1%) - 유 2분기 GDP (P: -0.2%qq)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삼성SDI, LG전자 - 美 애플, 아마존, 마스터카드
7/31 (금)	- 유 7월 소비자물가 (P: +2.8%yoy) - 유 7월 근원 소비자물가 (P: +2.4%yoy) - 日 7월 도쿄 소비자물가 (C: +1.8%yoy, P: +1.7%yoy)	[日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실적발표] 韓 현대건설, 에코프로비엠 - 美 엑손모빌, 애브비, 세브론

추천 종목

섹터/산업	종목/코드	편입가 (원) 편입 날짜	수익률	최근 1년간 차트	주요 실적 예상 & Valuation	투자 포인트																				
에너지	SK이노베이션 (096770)	116,900 (7/20일)	+11.3%		(단위: 십억원, 배) <table><tr><th></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r><tr><td>매출액</td><td>74,269.6</td><td>81,069.8</td><td>102,253.9</td></tr><tr><td>영업이익</td><td>63.3</td><td>429.9</td><td>5,460.2</td></tr><tr><td>순이익</td><td>(2,372.5)</td><td>(1,434.3)</td><td>2,398.3</td></tr><tr><td>PER (배)</td><td>-</td><td>-</td><td>10.0</td></tr></table>		24년	25년	26년	매출액	74,269.6	81,069.8	102,253.9	영업이익	63.3	429.9	5,460.2	순이익	(2,372.5)	(1,434.3)	2,398.3	PER (배)	-	-	10.0	- 러시아 경제시설 파손으로 복구 기간 감안 시 경제마진 강세 이어질 전망 - 경제설비 가동 중단으로 윤활유 시황까지 동반 개선, 초호황 강세 - SK On 포드 보상금 반영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
	24년	25년	26년																							
매출액	74,269.6	81,069.8	102,253.9																							
영업이익	63.3	429.9	5,460.2																							
순이익	(2,372.5)	(1,434.3)	2,398.3																							
PER (배)	-	-	10.0																							
그린산업/ESG	두산퓨얼셀 (336260)	39,000 (7/20일)	+9.7%		(단위: 십억원, 배) <table><tr><th></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r><tr><td>매출액</td><td>411.8</td><td>448.8</td><td>574.5</td></tr><tr><td>영업이익</td><td>(1.7)</td><td>(55.1)</td><td>(27.9)</td></tr><tr><td>순이익</td><td>(10.5)</td><td>(54.5)</td><td>(46.3)</td></tr><tr><td>PER (배)</td><td>-</td><td>-</td><td>-</td></tr></table>		24년	25년	26년	매출액	411.8	448.8	574.5	영업이익	(1.7)	(55.1)	(27.9)	순이익	(10.5)	(54.5)	(46.3)	PER (배)	-	-	-	- 미국 데이터센터향 PAFC 공급이 올 4분기 20MW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내년 1분기말부터는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 - 중국이 Scandium의 대부분을 대부분 정련함에 따라 연료전지를 SOFC 타입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에 경각심. 동사의 PAFC에 대한 구매 의사가 크게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음 - 목표주가는 2027년 매출액 기준 PSR 5.6배 수준. 해외 비교업체들은 평균 PSR 7배
	24년	25년	26년																							
매출액	411.8	448.8	574.5																							
영업이익	(1.7)	(55.1)	(27.9)																							
순이익	(10.5)	(54.5)	(46.3)																							
PER (배)	-	-	-																							
자동차 부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61390)	70,500 (7/6일)	+0.0%		(단위: 십억원, 배) <table><tr><th></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r><tr><td>매출액</td><td>9,411.9</td><td>21,153.3</td><td>22,519.7</td></tr><tr><td>영업이익</td><td>1,762.3</td><td>1,849.2</td><td>2,147.1</td></tr><tr><td>순이익</td><td>1,131.1</td><td>1,217.8</td><td>1,356.8</td></tr><tr><td>PER (배)</td><td>4.3</td><td>7.8</td><td>7.1</td></tr></table>		24년	25년	26년	매출액	9,411.9	21,153.3	22,519.7	영업이익	1,762.3	1,849.2	2,147.1	순이익	1,131.1	1,217.8	1,356.8	PER (배)	4.3	7.8	7.1	2분기 실적 호조 예상 - RE 중심 매출 구조로 단기 업황 변동에 자유로운 타이어 업체들의 아웃퍼폼 기대
	24년	25년	26년																							
매출액	9,411.9	21,153.3	22,519.7																							
영업이익	1,762.3	1,849.2	2,147.1																							
순이익	1,131.1	1,217.8	1,356.8																							
PER (배)	4.3	7.8	7.1																							
에너지	한국전력 (015760)	38,000 (6/22일)	-6.8%		(단위: 십억원, 배) <table><tr><th></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r><tr><td>매출액</td><td>93,398.9</td><td>97,646.8</td><td>98,359.2</td></tr><tr><td>영업이익</td><td>8,364.7</td><td>14,976.7</td><td>9,839.6</td></tr><tr><td>순이익</td><td>3,622.0</td><td>9,110.5</td><td>5,913.0</td></tr><tr><td>PER (배)</td><td>3.7</td><td>2.6</td><td>3.9</td></tr></table>		24년	25년	26년	매출액	93,398.9	97,646.8	98,359.2	영업이익	8,364.7	14,976.7	9,839.6	순이익	3,622.0	9,110.5	5,913.0	PER (배)	3.7	2.6	3.9	- 미국 원전 밸류체인 붕괴로 팀코리아 수주 확대가 예상, 이에 장기적으로 대미 원전 투자의 주계약자로 인한 프리미엄이 부각될 전망 -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미 원전 협력 진전에 따른 추가 주가 모멘텀도 유호
	24년	25년	26년																							
매출액	93,398.9	97,646.8	98,359.2																							
영업이익	8,364.7	14,976.7	9,839.6																							
순이익	3,622.0	9,110.5	5,913.0																							
PER (배)	3.7	2.6	3.9																							
화장품	에이피알 (278470)	373,000 (6/22일)	-5.1%		(단위: 십억원, 배) <table><tr><th></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r><tr><td>매출액</td><td>722.8</td><td>1,450.5</td><td>2,944.3</td></tr><tr><td>영업이익</td><td>122.7</td><td>347.6</td><td>731.3</td></tr><tr><td>순이익</td><td>107.6</td><td>282.0</td><td>565.2</td></tr><tr><td>PER (배)</td><td>17.6</td><td>49.3</td><td>24.5</td></tr></table>		24년	25년	26년	매출액	722.8	1,450.5	2,944.3	영업이익	122.7	347.6	731.3	순이익	107.6	282.0	565.2	PER (배)	17.6	49.3	24.5	- 아마존프라임데이(6/23~26) 고성과에 대한 주가 선반영 기대. 전년 행사기간 4일간 300억원의 매출 기저를 상회하는 성과 발생 시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 2분기 실적 호조 가능성 높음. 현재까지 발표된 오프라인 파이프라인(3월 세포라, 4월 타겟, 6월 월마트 입점 확정)만 해도 영업이익 1,700억 상회할 것
	24년	25년	26년																							
매출액	722.8	1,450.5	2,944.3																							
영업이익	122.7	347.6	731.3																							
순이익	107.6	282.0	565.2																							
PER (배)	17.6	49.3	24.5																							